

‘통일몸살’을 앓는 남북여성들의 뜨거운 열기가 분단 반세기 동안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내는 사흘이었다. ‘북녘자매들’의 모습과 말 속에서 통일에의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남녘자매들’의 뜨거운 시선과 긴장이 라마다올림피아호텔 대회의장의 공기를 팽팽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정신대와 징용 등 자기나라 정부가 과거 한민족에게 저지른 죄과를 참회하는 일본대표들의 사죄가 참석자 모두의 마음을 축축히 적셔주기도 했다.

화해와 포용, 여성고유의 사랑으로 얼싸안는 자매애와 청중들의 호트러지지 않는 정중함이 시종일관 회의장을 압도했지만 때로 분단의 상처가 굳게 자리잡고 있음을 재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장입장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검은양복의 보안요원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치러지는 잔치분위기, 그리고 부드러운 겉모습과 달리 첨예한 시각차이 등이 분단으로 인한 단절의 세월을 일깨워주었다. 세번에 걸친 토론마당 때마다 남북한 대표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듯한 논쟁까지 벌어져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첫번 토론회 ‘가부장제문화와 여성’에서 남쪽주제발표자 조형 교수는 “가부장제문화가 여성을 지배·억압할 뿐 아니라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쪽 토론자 김선옥 대표는 “성차별을 초래하고 대결과 침략을 일으키는 것은 남성중심적 문화가 아니라 제국주의문화”라고 지

적해 가부장제의 개념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는 “남한에서의 성차별을 ‘제도’(체제를 뜻하는듯)의 소산으로 보지 않고 가부장제문화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북한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완전한 남녀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해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시사했다. 이런 주장은 남쪽 토론자와 청중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궁금했던 북한사회의 실상과 북에도 여성문제가 있으리라 하는 기대를 접어두고 문헌에서 보아온 내용을 육성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런 흐름은 두번째 ‘통일과 여성’, 세번째 ‘평화와 여성’ 토

보다 못한 청중석에서 “양쪽 발표가 정부대변인의 성명발표와 같다. 이래가지고 통일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 여성이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팽팽한 대립이 중단되었다. 청중들의 상기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태영 영접위원은 “재미난 토론이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나란히 앉아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래서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수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통일은 내일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 걸릴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이뤄진다”고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이튿날(27일) ‘평화와 여성’ 토론회에서도 북쪽 토론자 홍

집중되었고 이에 대한 종래의 북쪽 주장의 반복이 청중을 지루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평화와 여성’ 주제발표를 한 시미즈 스미코 일본대표의 최근 일본의 천황제 부활과 신군국주의화가 물고을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위협을 우려하는 반성과 통찰은 일제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남쪽 토론자 김윤옥씨는 ‘평화’의 대립개념을 ‘폭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의 제거와 아울러 “핵은 만들지도 생각하지도 말자”는 반핵원칙을 제시해 청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 모든 주장과 토론이 여성만의 여망이 아닌 모든 인류의 평화여망을 여성들이 이처럼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사실이 대견하고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우리 남쪽여성들은 솔직히 말해서 북쪽 대표들의 말에 실

망했다. 좀 더 허심탄회해줄 수는 없었을까. 그러나 이런 바람조차 ‘남쪽탓대’로 북한을 보는 눈은 아닌지 돌아보고 싶다. “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웃으며 현실로 인정해야 하는 자세, 예컨대 ‘북침설’ ‘남침설’, 핵문제, 흡수통일 등 시각차이를 남·북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로 수용하자”는 이우정 대표의 폐회소감은 서울토론회가 통일로 가는 첫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리는 북쪽대표를 맘속으로부터 환영하고 있으나 아직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는 데는 미숙하다. 북쪽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 같다. 대화에 앞서 ‘마음 열기’ 훈련부터 하자.

분단 반세기 얼어붙은 마음녹인 사흘

91.11.28

조성숙 논설위원 ‘서울토론회’ 참관기

론회에서도 한결같았다. ‘통일과 여성’의 주제 발표에 나선 북쪽의 정명순 대표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면서 “통일운동에 여성이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그 중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쪽 토론자 이경숙 교수는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선교류를 통한 동질성회복을 우선과제로 하고 여기에 여성이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북쪽은 남쪽 방안에 대해 ‘흡수통일’과 ‘민주적 통일’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는가 하면 남쪽은 공통성회복을 통해 체제차이를 극복해 궁극적으로 한나라로 가야된다고 주장해 잠시 날카로운 공방이 오고갔다.

선옥 대표는 “남한 안의 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최근의 북한핵개발 저지를 위한 전쟁움직임을 비판해 예의 북한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었다. 여성이 평화유지를 위해 미군철수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는 대목에서 웅성웅성하던 청중도 남한의 티스퍼리트훈련이 남한정부 주장과는 다르게 대규모 도하·상륙작전과 북한내 구체적 지점을 목표로 하는 등 공격용 연습으로 긴장상태를 초래하고 실수에 의한 전쟁 발발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숙연해졌다. 여성의 체질적 평화원인 탓인 듯했다.

또한 6·25의 ‘북침설’ ‘남침설’ 등 쌓이고쌓인 질문이 북쪽에